ISSN 1229-0718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29권 1호 (2016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윤정 · 이옥경 · 이혜원 · 조영일 · 이원혜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 김아라 · 이승연

어머니의 내 · 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016년 제29권 제1호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전 화 : 051-510-2135

인쇄일 : 2016년 3월 15일
발행일 : 2016년 3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 집 위 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 사 위 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현정(이화여자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수현(연세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이경님(동아대학교)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순묵(성균관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은영(한양대구리병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명숙(꽃동네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진경선(연세대학교)
최형성(신라대학교) 한기백(서강대학교) 황순택(충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9, No. 1 March 15, 201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Mee-Kyoung Kwon(U.C Davis)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Jung Choi(Yale University)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1 호 / 2016. 3.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윤정 · 이옥경 · 이혜원 · 조영일 · 이원혜 / 1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 김아라 · 이승연 / 25

어머니의 내 · 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 47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 63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 83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 101

한국발달심리학회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6, Vol. 29, No. 1, 1-23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김 윤 정[1)†] 이 옥 경[2)] 이 혜 원[2)] 조 영 일[2)] 이 원 혜[1)]

[1)]국립서울병원 임상심리과 [2)]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위험회피 기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위험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정서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정서 반응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 정서조절, TCI

† 교신저자: 김윤정, 국립서울병원 임상심리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98, 국립서울병원 본관 1310호
E-mail: amazingyj@hanmail.net

www.kci.go.kr

한 개인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성적 성숙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아동기 때의 발달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숙하여 혼란감이 유발될 수 있다.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변화들 외에도 대학 진학 및 진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며(이홍석, 2005),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0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10년(2005년~201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전체 고등학생의 비율은 2006년 41.4%로 최고치에 이르렀고, 이후 현재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014년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고등학생의 비율의 26.7%로 5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여자 고등학생(31.6%)이 남자 고등학생(22.2%)보다 우울감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 Nolen-Hoeksema, 2001).

우울증이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연구들에서 우울증의 발생이 개인적인 취약성과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고(Cicchetti & Schneider-Rosen, 1984; Paula & Allen-Meares, 1987), 이러한 맥락에서 기질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Thomas와 Chess(1977)는 개인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이후의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질(temperament)이란 개인의 전 생애발달 과정과 적응과의 관계를 논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서나 성격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선천적인 개인차를 반영한다.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비롯하여 기질과 성격장애 및 심리장애의 관련성을 연구해 온 Cloninger(1987)는 기분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뢰롭고 안정적인 속성을 지닌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회피 기질이 주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환자의 특성이며(Youmg, Bagby, Cooke, Parker, Levitt, & Joffe, 1995),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함을 설명하였다(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 2003).

위험회피 기질은 위험하거나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자극에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질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Stallings, Hewitt, Cloninger, Heath, & Eaves, 1996). 이들은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때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통해 미리 대비를 한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위험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도 불필요한 걱정과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하여 부적응적일 수 있다.

위험회피 기질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있어서 중요한 생물학적, 성격적 취약 요인이고(김보경, 민병배, 2006; 이숙희, 황순택, 2009), 우울

www.kci.go.kr

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김정민, 윤진, 1992).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와 이화영(2003)은 위험회피 기질이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치료 후 관해 상태에서도 정상인과 비교하여 높은 위험회피 점수를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증 상태와 독립적이며 상태와 상관 없이 우울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Marijnissen, Tuinier와 Verhoeven(2002)은 우울증 환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위험회피 점수를 보이며, 항우울제 치료가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위험회피 수준이 우울에 대한 특질적인 지표(trait marker)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질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Biederman, Rosenbaum, Hirshfeld, Faraone, Bolduc, Gersten, Meminger, Kagan, Snidman, Reznick, 1990).

한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자주 언급되어 왔다. 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와 Reiser(1999)는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중 부모반응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이 자녀의 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각성 수준의 변화는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정서 결과와 높은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사회화 경험이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Field, 1994).

Eisenberg와 Fabes(1994)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녀의 정서 반응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구분했다. 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스스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자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위로해주거나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감정을 위장,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반대로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벌을 주거나 그 심각성이나 타당성을 평가절하하며, 자녀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해 부모가 역으로 자신의 심리적 괴로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다(Fabes, Eisenberg, & Bernzwing, 1990).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절충하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박지숙, 박성연, 2008; 박지혜, 2005; 배주희, 2011;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er, 1991; MacDonald & Parke, 1984; Roberts & Strayer, 1987). 반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역기능적인 정서조절과의 관련성이 높았는데(김문신, 2003; 홍소빈, 2011;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노지영, 정윤경(2010)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역기능적 정서 특성을 유의하게 낮추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www.kci.go.kr

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강조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욱 중요한 조절 대상이고, 정서 학습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을 확인하여(Eisenberg, Fabes, & Murphy, 1996; Thompson, 1998)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았다(윤보람, 2010).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반응은 자녀의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고(Krause, Mendelson & Lynch, 2003), 개인의 내적 경험이 인정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처벌받는 환경, 즉 정서적인 신호가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은 자녀의 정신병리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ountford, Corstorphine, Tomlinson, & Waller, 2007).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는 법을 습득함으로써(Buck, 1984),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다루는 법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 경험과 처벌을 연합하여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역기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개인의 적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질적 취약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정서조절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과 심리적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 병리와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Bonanno, 2001),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방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Barett & Gross, 2001). 특히 역기능적 정서조절이 정신 병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Eisenberg, Champion, & Ma, 2004; Rydell, Berlin, & Bohlin, 2003), 많은 연구자들은 정신 병리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이란 무엇인가? 아동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정서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불쾌한 정서가 커지기도 하며,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망설이고 후회한다. 때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 일부러 억제하기도 한다(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예를 들면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지만, '화' 를 표현하면 이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사회적 관계의 손상을 걱정하여 때로는 자신의 정서 반응에 대해 갈등하거나 억제하게 되는데, King과 Emmons(1990)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들 사이의 갈등이 정서표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의 표현 욕구가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목표들과 갈등을 겪을 때, 자신의 정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예상하여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갈

www.kci.go.kr

등하며 억제하는 것이다(최해연, 2008).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갈등하고 억제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고 주장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과민한 생리적 반응성과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초래한다(King & Emmons, 1990).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 및 신체 질환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어(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예언인자라고 할 수 있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 양가성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들이 어떠한 상호 작용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긍, 부정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기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기질이 스스로의 정서를 잘 조절하거나 혹은 잘 조절하지 못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Garner & Power, 1996).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언급하기에 앞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Mongrain과 Vettese(2003)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낮은 정서 명확성의 높은 상관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와 갈등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하여 명료하지 않으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다시 말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료한 사람이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등이 적고,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제약 등 정서조절곤란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언급한 박정훈(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은 반추와 관계가 있어서 자신이 정서표현갈등을 경험했던 그 상황을 계속 떠올려 불편감이 지속되고, 이러한 불편감은 정서표현갈등이 있었던 상황에 빠지는 것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King, Emmons, & Woodley, 1992). 수치심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민경과 현명호(2013)의 연구에서 수치심이 내재화된 사람은 자기 제시라는 하나의 목표에 관해서 해야 된다는 동기와 동시에 실패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기를 함께 갖는 이중성으로 인해 접근-회피 갈등이 초래되며, 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정서표현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불안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정서명료성, 정서표현갈등,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리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걱정이나 비관적 사고에 빠져드는 위험회피 기질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정서를 교류하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레 부정적인 결과를 과도하게 걱정하며 정서 표현에 대해 갈등할 수 있겠고, 예상되는 부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는 등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TCI 척도를 사용한 위험회피 기질

www.kci.go.kr

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해 볼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연구와 더불어 어머니 반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의 정서조절 양식은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며 나아가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에 대한 사회적인 정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어머니의 정서조절 양식은 자녀의 정서조절 양식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홍소빈(2011)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노지영과 정윤경(2010)도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나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변인과 자녀의 정서 결과와의 높은 관련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우울 수준이 높다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는데,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은 각성 수준을 증가시켜 다양한 신체 질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반응에도 민감하게 만들어 사회적 관심이 저하되고, 적응을 방해한다고 하였다(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회피 기질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와 적응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요인이 될 수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표집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는 총 610명이 참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65부를 제외하고 총 5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고등학교 여학생 301명(M=15.70, SD=.60), 대학교 여학생 244명(M=19.67, SD=.74)으로 구성되었고,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은 13세 이전의 어머니의 반응을 자녀가 회고한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40분이었다.

측정도구

www.kci.go.kr

기질 및 성격 검사-청소년용

Cloninger(1994)가 제작한 TCI를 바탕으로 독일의 Schmeck, Meyenburg와 Poustka가 개발한 JTCI 12-18을 국내에서 오현숙과 민병배(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 검사-청소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을 사용하였다. 독일판 JTCI 12-18은 본래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사이지만 한국판 JTCI는 대상 범위를 다소 확장하여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황정미, 채규만, 2007). JTCI를 통해 측정되는 4가지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NS), 위험회피(HA), 사회적 민감성(RD), 인내력(P)의 차원이고, 3가지 성격차원은 자율성(SD), 연대감(C), 자기초월(ST)의 차원이며, 인내력을 제외한 각각의 척도들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김보경, 민병배, 2006). JTCI는 총 8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0=그렇지 않다, 3=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척도에 해당하는 13문항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위험회피의 하위 척도는 HA1: 예기불안/낙천성(Anticipatory Worry & Pessimism vs Uninhibited Optimism), HA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Fear of Uncertainty), HA3: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Shyness with Stranger), HA4: 쉽게 지침/활기 넘침(Fatigability vs Vigor)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험회피 척도의 Cronbach'α는 .82였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α는 .57, .81, .75, .61이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3).

회고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척도

Fabes, Eisenberg와 Bernzwing(1990)에 의해 개발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의 부모의 반응유형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을 박유경(2009)이 성인 자녀가 13세 이전의 부모 반응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식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6개의 부모 반응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CCNES를 통해 측정되는 부모 반응 유형은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 PFR), 정서초점 반응(Emotion- focused reaction: EFR),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reaction: EE),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PR), 과소평가 반응(Minimizing reaction: MR),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 DR)이 포함된다. Eisenberg와 Fabes(1990)의 연구에서 이러한 6개의 부모 반응 유형을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해당하는 36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비지지적 반응의 3가지의 하위 유형 중 처벌적인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 혹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필요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벌을 주는 반응이며, 최소화 반응은 어머니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춰주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어머니가 느꼈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으로 구성된다.

www.kci.go.kr

CCNES 척도는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있으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척도의 전체 Cronbach'α는 .90이었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α는 .80, .79, .70이었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 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이동귀(2007)가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는 정서 표현 상황에서 상반된 목표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양가 감정을 측정한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2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자기방어적 양가성 척도는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 표현의 결과로서 거부되는데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며, 둘째, 관계관여적 양가성 척도는 자기보호적인 두려움 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AEQ-K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전체 Cronbach'α는 .91이었고, 하위 요인들의 Cronbach'α는 .89, .80 이었다.

우울척도

한국판 역학 연구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는 Ran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 등이 번안한 우울 척도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의욕상실, 수면장애 등의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CES-D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0=거의 안 느낌, 3=거의 매일 느낌)로 구성 되어있고, 총점의 범위는 0~60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21점 이상이면 '주요 우울', 15~20점이면 '경도 또는 중등도 우울', 15점 미만이면 '정상' 범주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Cronbach'α는 .90이었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Window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값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형에 대해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위해 모형의 간명도(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CFI (Comparative Fit Index)는 자유도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켜 그 영향을 배제하고 모형을 비교하는 비교 부합치로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www.kci.go.kr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할 때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결 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적절성을 보기 위해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이 1을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52, p<.01)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4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강할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우울감도 더 높았다. 위험회피 기질의 하위 요인들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 기질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18, p<.01)을 보였고, 우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2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이 비지지적일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우울감도 더 높았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요인들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요인들과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우울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976, CFI=.983, RMSEA=.049[.032, .066]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들은 모두 0.47 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하였다. 또한 세 잠재요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위험회피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요인은 .23,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정서표현 양가성 요인은 .22, 위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 요인은 .66으로 나타났으

www.kci.go.kr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4
1. 위험회피	1												
1-1. 예기불안/ 낙천성	.693**	1											
1-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835**	.547**	1										
1-3.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819**	.347**	.534**	1									
1-4. 쉽게지침/ 활기넘침	.567**	.347**	.399**	.217**	1								
2. 비지지적 반응	.195**	.153**	.167**	.101*	.211**	1							
2-1. 처벌 반응	.163**	.112**	.147**	.093*	.166**	.890**	1						
2-2. 과소평가 반응	.153**	.131**	.127**	.060	.194**	.889**	.688**	1					
2-3. 심리적고통 반응	.195**	.160**	.167**	.116**	.170**	.889**	.710**	.745**	1				
3. 정서표현 양가성	.522**	.494**	.473**	.355**	.254**	.182**	.157**	.177**	.159**	1			
3-1. 자기방어적 양가성	.571**	.489**	.511**	.413**	.291**	.217**	.184**	.187**	.195**	.910**	1		
3-2. 관계관여적 양가성	.372**	.406**	.344*	.227**	.167*	.111**	.099*	.134**	.092*	.903**	.645**	1	
4. 우울	.446**	.380**	.391**	.242**	.412**	.211**	.153**	.164**	.184**	.424**	.508**	.257**	1

*p<.05 **p<.01 ***p<.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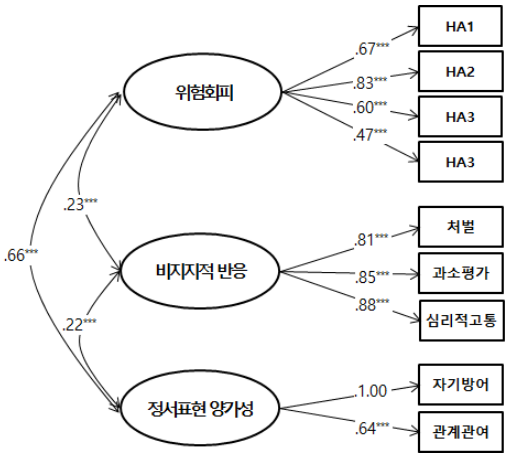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바라 할 수 있다(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지지적 반응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639, *S.E*=.031, p<.001).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76, *S.E*=.005, p<.05).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84, *S.E*=.824, p<.001).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위험회피 기질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18, *S.E*=.575, p<.001).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3, *S.E*=.076, *ns*).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자녀의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로		경로계수	*S.E*
위험회피 기질	정서표현 양가성 ← 위험회피 기질	.639***	.031
	우울 ← 정서표현 양가성	.284***	.824
	우울 ← 위험회피 기질	.318***	.575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 비지지적 반응	.076*	.005
	우울 ← 정서표현 양가성	.284***	.824
	우울 ← 비지지적 반응	.063	.076

*p<.05 **p<.01 ***p<.001

www.kci.go.kr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우 β=.182(.639 × .284)이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β =.318(*S.E*=.575, p<.001)이었다. 이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우 β=.022(.076 × .284)이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β =.063 (*S.E*=.076, *ns*)이었다.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 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

표 3. 변인들의 적,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 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결과 변수	설명 변수			
우울	위험회피 기질	.318	.182	.500
	비지지적 반응	.063	.022	.085
	정서표현 양가성	.284	-	.284
정서표현 양가성	위험회피 기질	.639	-	.639
	비지지적 반응	.076	-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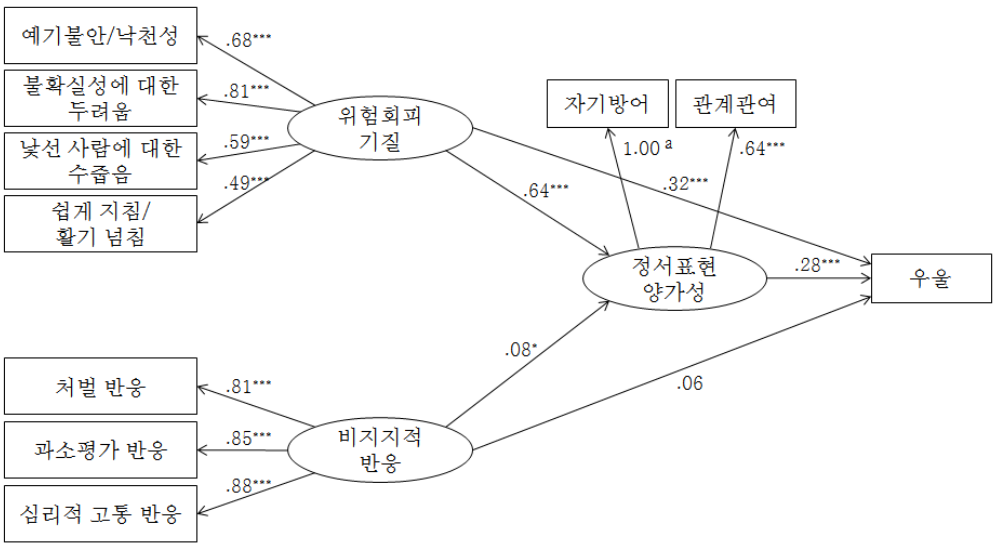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최종모형)

www.kci.go.kr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β=.182, 95% 신뢰구간에서 [1.023, 2.487])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β=.022, 95% 신뢰구간에서 [.001, .098])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 기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정서표현 양가성, 우울 간의 관계

위험회피 기질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고, 각각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회피 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거나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을 가진 위험회피 기질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갈등하며 억제하는 등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위험이 실제 현실로 나타날 때 사전의 계획과 준비가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며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 필요 이상으로 걱정과 갈등이 많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이 우울과 관련이 높은 기질적 특성임을 보고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 한다(김보경, 민병배, 2006;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 2003; 이정숙, 문보경, 2010; Grucza, Przybeck, Spitznagel, & Cloninger, 2003; Peirson & Heuchert, 2001; Richter, Polak, & Eisemann, 2003; Schmeck & Poustka, 2001).

셋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및 부정적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노지영, 정윤경 2010; 박유경, 2009; 배주희, 2011; 홍소빈, 2011;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하거나

www.kci.go.kr

자녀의 정서 경험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편감을 보이는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해석하는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행동이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서자각 및 정서표현 등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우울 및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Denham & Grout, 1992;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Thompson, 1994).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고, 어머니 반응에 대하여 화가 나는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표출되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자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Bradly, 2000). 단 시간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반응 및 대처를 통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나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이는 자녀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동 및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개인의 적응과 높은 상관을 있음을 의미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승미, 오경자, 2006; 최해연, 2008; 하정, 1997;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Mongraine & Vettese, 2003; Pennebaker, 1985).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해 항상 갈등하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양가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유발된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는 만성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최해연, 2008).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위험회피 기질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매개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회피 기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부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질의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회피 기질은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과

www.kci.go.kr

관련이 높은 기질적 특성으로 확인되어 왔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벌 및 위험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에너지 수준이 낮아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가중되는 상황에서 판단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지레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들고 행동이 억제되며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위험에 대비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미충족된 욕구나 자신의 욕구에 반하는 행동이 누적될 경우 불안, 각성 상태를 높이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김보경, 민병배, 2006). 대인관계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표현으로 인해 돌아올 불이익이나 혹은 상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비관적인 사고로 인해 표현을 해도 괜찮은 상황에서도 갈등을 느끼며 억제하게 된다. 만성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는 자신의 정서 관리에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기저에 미충족된 욕구로 남아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가 반드시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자신의 정서표현 욕구를 억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계주의 문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는 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조절 패턴이 개인의 삶에서 만성적으로 작용한다면 낮은 삶의 안녕감 및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최해연, 2008).

추가적으로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경험하고 우울감이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대학생 집단에 비해 위험회피 기질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차이는 입시전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정명숙, 2005),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일류대학'과 같은 외적 조건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 집단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이종환, 박은아, 2010). 나아가 유사한 기질적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라도 외부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완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과정은 자녀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가 환경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Campos, Campos, & Barrett, 1989). 다시 말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이후에 정서를 표현해야 하

www.kci.go.kr

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며, 내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미해결된 부정적 감정이 억압되어 우울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TCI를 사용한 치료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위험회피 수준과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에 주목해왔는데(김봉석, 2004; Abrams, Yune, Kim, Jeon, Han, Hwang, Sung, Lee, & Lyoo, 2004), 어머니의 정서반응 양식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우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우울의 예방과 조기 개입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내용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노지영, 정윤경, 2010; 홍소빈, 2011)와도 비일관된다. 이에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설문은 자녀에 의해 회고된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전체 분석과 비교해서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특성요인, 개인이 속한 맥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측면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인들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자녀의 정서조절이나 우울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축적된 많은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우울의 발달에 중요한 예언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고, 상담 및 부모 교육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TCI로 측정한 위험회피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두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 내적인 기억과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왜곡을 통제할 수 없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설문은 자녀에 의해 회고된 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경기도 소재의 여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기

www.kci.go.kr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연령, 성별 및 임상 집단에 따른 기질과 정서조절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서론에서 인용한 Thomas와 Chess (1977)의 연구에서 기질은 조절될 수 있고, 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아동의 기질 양식과 부모가 사용하는 자녀 양육 패턴 간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제안함으로써, 기질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 반응이 독립적으로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았으나,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지지적인 증거는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5). 영아의 정서조절 전략과 어머니의 반응유형 간의 관련성. 아동학회지, 26(6.), 173-187.

김문신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김봉석 (2004). 주요우울증환자에서 항우울증 약물치료 전후 위험회피성의 변화.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호, 함병주, 이민수, 이화영 (2003). 기질성 격검사와 관해 상태 우울증. 신경정신의학, 42(3), 335-339.

김정민, 윤 진 (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55-72.

노지영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마음사랑.

박유경 (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정훈 (2014). 위험회피 기질과 자극추구 기질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3), 571-581.

박지숙, 박성연 (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6.

박지혜 (2005).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www.kci.go.kr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배은경 (2011).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 (2014). 제10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 조사통계.

윤보람 (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숙희, 황순택 (2009).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CI-RS)의 구인타당도: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533-548.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이종환,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445.

이지영 (2012). 연령증가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83-808.

이홍석 (2005). 고등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인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명숙 (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87-108.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소빈 (2011).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억제 및 정서표현 양가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미, 채규만 (2007). 기질과 성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69-982.

Abrams, K. Y., Yune, S. K., Kim. S. J., Jeon, H. J., Han, S. J., Hwang, J., Sung, Y. H., Lee, K. J., & Lyoo, I. K. (2004). Trait and state aspects of harm avoid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reatment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ysthymic disorder, and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8*(3), 240-248.

Barrett, L. F., & Gross, J. J. (2001). Emotional

www.kci.go.kr

intelligence. In Mayne, T. J., & Bonanno, G. A. (Eds.), *Emotions,* 286-310. NY: The Gilford Press.

Biederman, J., Rosenbaum, J. F., Hirshfeld, D. R., Faraone, S. V., Bolduc, E. A., Gersten, M., Meminger, S. R., Kagan, J., Snidman, N., & Reznick, J. S. (1990). Psychiatric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of paren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1), 21-26.

Bonanno, G. A. (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Mayne, T. J., & Bonanno, G. A. (Eds.), *Emotions,* 251-285, NY: The Gilford Press.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Y: Guilford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M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Y: Guilford Press.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Cicchetti, D., & Schneider-Rosen, K. (1984).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childhood depress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4*(26), 5-27.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Denham, S. A., & Grout, L (199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Eisenberg, N., Champion, C., & Ma, Y.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An emerging constru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36-259.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138-156.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Psychological Theory, 9*(4), 241-273.

Eisenberg, N., &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www.kci.go.kr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3), 583-602.

Eisenberg, N., &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Eisenberg, N., Fabes, R. A., Schaller, M., Carlo, G., & Miller, P. 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6), 1393-1408.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Description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s and Human Development, Arizona State University.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08-227.

Garner, P. W., & Power, T.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4), 1406-1419.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Grucza, R. A., Przybeck, T. R., Spitznagel, E. L., & Cloninger, C. R. (2003).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2), 123-130.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King, L. A., & Emmons, R. A., Woodley, S. (1992). The structure of inhibi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85-102.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rional inhibition. *Journal of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Marijnissen, G.., Tuinier, A. E. S., & Verhoeven, W. M. A. (2002).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ders, 70*(2), 219-223.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www.kci.go.kr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Mountford, V., Corstorphine, E., Tomlinson, S., & Waller, G. (2007).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s in the eating disorders. *Eating Behaviors, 8*(1), 48-58.

Nolen-Hoeksema, S. (2001).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73-176.

Paula, Allen-Meares. (1987).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Work, 32*(6), 512-516.

Peirson, A. R., Heuchert, J.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mood: comparison of the BDI and the TC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3), 391-399.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Rettew, D. C., & McKee, L. (2005). Temperament and its role in developmental psychopath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3*(1), 14-27.

Roberts, W. L.,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15-422.

Richter, J., Polak, T., & Eisemann, M. (2003). Depressive mood and personality in term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mong the normal population and depressive in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17-927.

Rothbart, M. K., & Mauro, J. A. (1990). *Questionnarie measures of infant temperament.* In Fagen, J. W., & Colombo, J.(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cy: Reliability, stability, and predicition, 411-429. Hillsdale, NJ: Erlbaum.

Rydell, A.,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8 year-old children. *Emotion, 3*(1), 30-47.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logical Association.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Psychopathology, 34*(3), 159-163.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Stallings, M. C., Hewitt, J. K., Cloninger, C. R., Heath, A. C., & Eaves, L. J. (1996). Genetic and environmental structure of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hree or four temperament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1), 127-140.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Oxford, England: Brunner/Mazel.*

Thomas, A., Chess, S., & Birch, H.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University Press.

www.kci.go.kr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25-104). New York: Wiley.

Young., Bagby M., Cooke R., Parker J., Levitt A., Joffe R. A. (1995). Acomparison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dimensions in bipolar disorder and unipolar depression. *Psychiatric Research* 58(2), 139-143.

1차원고접수 : 2015. 12. 22.
수정원고접수 : 2016. 02. 10.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6, Vol. 29, No. 1, 1-23

The effects of harm avoidance,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Mediation effects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Yoonjung Kim[1)] Okkyoung Lee[2)] Hyewon Lee[2)] Youngil Cho[2)] Wonhye Lee[1)]

[1)]Seoul Natoinal Hospital

[2)]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harm avoidance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were related to the child's ambivalenc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I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erms of the effect of harm avoidance and mother's 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that harm avoidance temperamen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depression. However, a mother's 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had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It was that the temperament of harm avoidance and supportive reactions were, the ambivalenc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epression.

Key words : Harm avoidance,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CI,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epression, Emotion regulation

www.kci.go.kr